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희망의 새시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2. 7.(일) 배포시		
배포일시	2016. 2. 7(일) 회의종료후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자금시장과,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한국은행 안정총괄팀 금융감독원 거시감독팀 국제금융센터
담당과장	윤인대 과장 (044-215-2730) 주환욱 과장 (044-215-2750) 신중범 과장 (044-215-4730) 강영수 과장 (02-2156-9730) 김옥중 팀장 (02-750-6834) 장경윤 팀장 (02-3145-8180)	담당자	조성중 서기관 (044-215-2731) 이희곤 사무관 (044-215-2751) 김승환 사무관 (044-215-4712) 태현수 사무관 (02-2156-9733) 박완근 차장 (02-750-6755) 김정훈 수석조사역 (02-3145-8181)

제목: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 개최

- 정부는 2.7(일) 14:00, 최상목 1차관 주재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 기재부 1차관 주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한은 부총재보, 국금센터 담당자 참석
- 금일 국내외 금융시장은 휴일과 설연휴 등으로 개장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를 볼 때, 금번에도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다만, 연초부터 중국 증시 급락과 유가 하락 등으로 국제금융 시장이 작은 뉴스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므로
 - 북한의 도발과 이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내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북한 관련 동향과 국내외 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
- 특히, 최차관은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각 기관이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
 - 첫째, 기 운영중인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반장 : 기획재정부)을 통해 국내외 금융,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
 - 둘째, 북한 사태 전개,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과 관련, 정부가 기 마련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여 필요시 즉각 대응
 - 셋째, 신용평가사, 외국인 투자자와 주요 외신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응과 준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하여 투자심리를 안정화
 - 넷째, 소비·수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모니터링 강화
- 정부는 2.10일(수) 10:00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
 - 그 이전이라도 추가 상황 발생 등 필요시 언제든지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대응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구성(안)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